

## 근대전공 문학자가 본 죽음의 역사

[서평] 황훈성(2013),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08쪽.

윤 민 우\*

영문학자 황훈성 교수의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은 플라톤의 『파이돈』으로부터 20세기 말까지의 서양문학에 나타나는 죽음의 다양한 면모를 추적하였다. 지성사의 시작부터 끝에 달하는 장구한 세월의 모든 주요한 생각들을 다룰 수는 없으나, 대체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 내세의 모습, 구원과 은총의 의미, 죽음의 공포 및 상기가 주요 관심분야이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플라톤, 에피쿠로스, 에픽테토스, 루크레티우스 등 고대 사유에 의존하였다. 구원과 은총 및 죽음의 공포는 단테, 플래너리 오코너, 사무엘 베케트, 크리스티나 로제티, 셰익스피어, 톨스토이의 저작들에서 흥미로운 양상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상기를 이해하기 위해 홀바인 2세, 콰트, 그리고 코키스가 공유하는 ‘죽음의 무도’ 모티프를 각각 분석하였다.

죽음은 중세 이래 낮이나 모래시계로 상징되기도 하고,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여행, 고치에서 벗어나 얇은 껍질에서 나비로 태어

---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남, 얼마 동안의 잠 이후에 본향에서의 영원한 안식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죽음의 얼굴,’ ‘죽음의 메타포’의 풍부한 예들을 본 저서에서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채택한 작품들은 보기에 따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들은 저자의 재기발랄한 선정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제각기 독특한 죽음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 본 저서의 내용을 간간히 소개하면서, 저자의 해설 및 본 저서의 의의에 관하여 몇 가지 큰 주제로 나눠 토론해 본다.

## 1. 영혼의 소멸과 불멸: 고대 사상

영혼과 내세의 문제를 생각하며, 독자는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주연한 『사랑과 영혼』(Ghost)이라는 영화를 떠올릴 수 있다. 주인공은 살해당해 영혼으로 떠돌다가 살해자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밝은 빛에 싸여 하늘로 올라가는데, 본 저서와 관련하여 우리는 비열한 살해자의 죽음 장면에서 더 관심이 있다. 그가 죽을 때 악령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그를 데려간다. 여기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므로, 이 장면은 영혼 불멸설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지옥으로 불려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와 더불어 기독교 사상에는 육체가 죽음 후에 편안한 잠을 자고 예수의 재림 시에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견해도 강력하였다. 더욱이, 이 영화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죽은 영혼들이 차별적 상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 같은 상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논쟁거리였다. 이런 관점의 차이들은 고대 및 중세기의 어느 기점에서 확립을 본 것이고, 그 근원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다.

본 저서는 영혼은 불멸하는가, 아니면 육체와 함께 소멸하는가라는 물음과, 영혼이 불멸하다면 사후세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영혼이 소

멸한다면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는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 문제에 다가가기 위하여 그리스로마의 고대 사유를 선택하였다. 물론 그리스로마가 일반적으로 사유의 시작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라톤(소크라테스)과 에픽테토스는 영혼 불멸론을, 원자론의 대가인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영혼 필멸론을 주창하였다. 플라톤처럼 영혼의 불멸을 믿은 에픽테토스는 유신론적 금욕주의자(스토아학파)이다. 그에 의하면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는 비아속체이므로, 그는 나 자신의 통제권한 안에 존재하는 아속체인 도덕, 이성 기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죽음 후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하여 지각작용이 없어지므로 고통도 없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신론자이며 유물론자이다. 뇌신경학이라는 흥미로운 부제가 붙은 루크레티우스에 대한 본 저자의 소개는 영혼을 신경이라는 물질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루크레티우스는 영혼도 육체처럼 성장하고 쇠퇴한다고 보아, 사후에 영혼이 겪을 고통의 공포를 제거하였다.

물론 중세 기독교 문화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영혼불멸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는데, 이런 사유의 갈래를 중요시해야 한다면, 본 저서에는 대체로 이러한 중세 라틴 전통이 제외되어 있어 아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신학과 가톨릭 문화, 그리고 종교개혁 후의 프로테스탄트 전통에도 영혼과 죽음에 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을 것이다. 오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등에게서도 배울만한 영혼과 내세관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본 저서도 『에브리맨』, 단테, 홀바인, 셰익스피어를 다루기는 하지만, 고대 그레코 로마 전통의 영혼관에 비하면 체계적이거나 상세한 토론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본 저서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오늘날의 죽음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초엽에 재발굴된 이교 원자설 및 영혼 필멸설의 시의성을 강

조할 수 있는데, 본 저서는 시작에서 그러한 사유로의 문을 열어 두고 있는 셈이다.<sup>1)</sup> 사실상, 이 저서가 다루는 마지막 작품에서도 이 그레코 로망 사유의 두 갈래가 다시 적용된다. 이 저서는 이런 관점에서도 수미 일관하지만, 다루는 작품의 수를 헤아려 보더라도 중세라틴 전통보다는 근대 이후에 죽음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죽음에 관한 태도: 아리에의 구분

황 교수가 의존하는 시대구분의 틀 중의 하나는 아날파 역사가 필리페 아리에(Philippe Ariès)의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중세의 순화된 죽음과 근대의 수치스런 죽음을 나누는 데 우선 크게 기여한다. 그런데, 아리에의 연구로부터 황 교수가 ‘순치된 죽음’이라 번역한 “tamed death”는 엄격하게 말하면 중세 안에서도 12세기 이전의 죽음관이다. 아리에의 프레임에 있어, 12세기를 기점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12세기 이전에 죽음이 순화된 인식을 받았던 것은 모든 이가 저승으로 옮겨간다는 의식, 그리고 그곳에서 동등한 대접을 누린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누구나 가는 곳이고, 가는 곳 또한 한 가지 성격으로 분명했으므로, 장례는 공동체가 치러야 할 작별의 의례 이상이 아니었다. 황 교수의 저서는 이러한 12세기 이전의 죽음은 다루지 않는다.

아리에는 12세기 이후부터 18세기까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례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One’s Own Death)이라 칭했다. 자크 르 고프의 『연옥의 탄생』을 보더라도, 서유럽의 12세기는 연옥이 생겨나고 부르주아 계층이 태동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다.<sup>2)</sup> 이 시기에는

1) 스티븐 그린블랫은 최근 저술 『Swerve』에서 1417년 루크레티우스 필사본의 발굴이 세상을 바꿔 놓았다고 말한다. 이는 근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다. Stephen Greenblatt (2011), *The Sw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 New York: Norton.

사후세계에 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인의 시간의식의 중요성과 함께 교역의 계산법 등이 생겨나, 개인이 생전에 지은 죄에 상응하여 사후에 겪을 벌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진다는 인식을 가능케 했다. 이 시기로부터 개인의 선행을 종합하는 삶의 결산서라는 개념이나, 천사와 악마가 개인의 죽음의 침상 가에서 기다리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바로 개별적인 ‘나 자신의 죽음’이다. 그리고 르네상스에 오면, 죽음의식은 또한 달라지지 않는가? 대표적으로 해골을 메멘토 모리(memeton mori)로 지니며 번민하는 햄릿의 독백을 살펴 볼 수 있다. “죽음은 잠”이라 일컬어지는데, 이는 중세 기독교 믿음의 일부이다. 부활까지는 잠자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요소가 도입된다. 혹시 “악몽이 오면”이라는 물음이 의미심장하다. 신의 예정에 의해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나온 이래로,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며, 더불어 막스 베버도 말하듯이, 현세에서 이룬 물질적 축적에 동반되는 축복의식이 종교개혁 후부터 생겨나 현세에 대한 일반인의 가치의식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16-17세기 사람들이 시간, 무상함, 유한성에 유달리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랄 수 있다.

그러므로, 황 교수가 토론하듯이, 13-4세기의 단테는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정교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장소로 만들었고, 특히 지옥에서의 처벌은 지상에서의 과오에 정확히 반대되는 형태의 벌을 받는다는 콘트라파소(contrapasso)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재현하였다. 이는 매우 흥미 있는 관측이다. 그런 반면,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시의 불멸성에의 호소 때문에 플라톤주의로 몰아 간 해석은 미흡한 결론짓기일 것이다. 『소넷』이 진행되면서 시의 불멸성에 관한 시인의 자신감의 쇠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검은 여인(dark lady)에 이르면, 대상을 칭송하

2) Jacques Le Goff (1984), *The Birth of Purgatory*, trans. Arthur Goldhammer, Chicago: U of Chicago P.

는 시적 의미형성이 ‘위증’ 혹은 허위임을 말하지 않은가? 이 시기는 신 플라톤주의적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회의가 생겨난 시기였으며, 스펜서에게서 셰익스피어를 거쳐 존 던으로 오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점차 주도적이 된다.

### 3. 근대의 죽음과 구원의 문제

죽음의 관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급속하게 달라진다. 죽음은 진보, 생산, 합리성에 상반되는 비이성의 영역이었으므로 가혹한 냉대를 받게 된다. 그런데, 계몽시대 말경에는 토마스 그레이 등의 일군의 시인들이 무덤과 밤을 기리는 송가를 불렀으며, 낭만주의에는 죽음의 유희과 에로티시즘을 즐기는 병적인 심리상태도 등장한다. 그러나 본 저서가 지적하듯,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죽음의 공포(timor mortis)가 재등장한다(399쪽). 물론 이는 중세 말에 크게 부각되었던 죽음의 공포와 같은 성격일 수는 없다. 아리에에 의하면, 이제 “너의 죽음”(Thy Death)은 나의 죽음의 상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무덤은 교회 뜰 공동묘지에서 개인사유지로 옮겨가야만 했다. 특히 20세기 이후의 죽음은 “금제된 죽음”(Forbidden Death)이라 불린다. 생산과 축적, 텔로스적 진보가 삶의 이상(理想)이 된 시기적 분위기에서 쇠퇴와 해체를 가리키는 죽음은 결코 밖으로 내놓을 의식(儀式)의 대상이 못 된다. 본 저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대 이후의 수치스럽고 금제된 죽음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죽음은 더 이상 공동체적이지 않아, 친구나 친지들이 마지막 인사를 위해 방문하는 것을 사양하며,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외로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마지 않는다. 아리에가 말하듯이, 빅토리아 시대의 병원은 죽음을 막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는 곳이 되었다. 본 저서의 ‘죽음의 공포와 인간적 극복’에

서 다뤄지는 작품들은 대체로 근대 이후의 것들이며,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토론된다고 말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동반자를 잃고 죽음에 저항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공감과 동정을 느끼는 편안한 죽음을 맞는다. 저자가 해설하듯이 이웃의 회피는 중세 도덕극 「에브리맨」의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고찰될 만하다. 「에브리맨」에서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인정치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당연하고 저승으로 가는 것이지만, 누가 그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갈 것인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오로지 ‘지식’의 안내로 ‘선행’만이 그를 동행하는데, 이는 특징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바탕을 둔 죽음과정의 재현이다. 그에게는 신에 대한 지식이 불가결하며, 동시에 생전에 베푼 선행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상벌이 주어질 것이다. 이와는 많이 다르게,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이웃들이 이반을 회피하는 것은 죽음을 수치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더불어, 저자가 최초의 현재적 죽음에의 통찰이라고 칭하는바, 검은 자루에 휩쓸려가는 영혼에 관한 묘사(365쪽 이하)는 삶의 단절을 가리키는 죽음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학적 죽음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런 측면에서 근대적이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 플라너리 오코너의 경우는 매우 독특하다. 오코너의 작품에서 은총과 구원에 관해 주제넘게 확신하는 무명(無明)과 위선적이고 자아만족적인 경건성이 가장 큰 문제거리이다. 황 교수는 17세기 사상가 맬리브란슈(Malebranche)를 원용하여 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그에 의하면 은총은 사적이지 않고 자연법칙처럼 객관적으로 닥친다는 것이다. 맬리브란슈의 우인설(occasionalism)은 은총이 신의 개별적 역사가 아니고 신의 일반의지라고 주장한다. 본 서평자가 영문학입문 수업에서 「선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A Good Man is Hard to Find)를 가르칠 때,

이 해석이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받아들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배교(背敎)적 범죄자 미스핏(Misfit)은 자만하고 위선적인 할머니를 총으로 쏘아 죽이면서, “그녀의 삶의 매 순간 누군가가 그녀에게 총을 쏘아 주었다면, 그녀가 선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라고 말한다. 충격요법으로 신의 의지를 현재화하여,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은총의 세례이다. 그러므로 오코너에게 현세는 연옥이고, 따라서 현세는 내세에 자동 이월된다.

오코너만큼이나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이 크리스티나 로제티이다. 로제티의 시적 화자는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희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사후에 귀환하여 살아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죽음 후의 내가 현세의 나를 바라보면서,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세에의 미련과 애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시적 화자는 삶과 죽음 사이를 부유하여, 죽음과 삶을 모두 인지하는 특이한 존재로 묘사된다. 궁극적으로 내세를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근대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삶의 애착과 내세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심리를 표출한다.

#### 4. ‘죽음의 무도’와 죽음의 상기

전근대, 근대, 근대 후의 죽음의식을 각기 대표하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 작품들을 찾아낸 것은 확실히 황 교수의 연구 성과이다. 홀바인(Holbein) 2세의 목관화, 콤브(Combe)의 「영국식 죽음의 무도」, 코키스(Kokis)의 「퀘벡의 죽음의 무도」가 그것이다. 드물게 인용되는 「퀘벡의 죽음의 무도」 등의 텍스트는 저자가 해외 도서관에서 어렵게 구한 것인데(서문참조), 그때가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음악에 안무를 맞춘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쯤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연아의 사치스런 의상이나 높은 점프와는 반대로, 저자도 소개하고 있듯

이, ‘죽음의 무도’는 중세 전통이며 죽음의 처절한 상기(想起)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에서 토론한 12세기 이전의 “순치된 죽음”의 보완으로서 피터 브라운의 저서(*The Cult of the Saints*)를 참조하면,<sup>3)</sup> 이른 중세에 순례자나 신자들이 성인의 뼈 등을 보관한 것은 질병을 낮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성유물로서이지, 죽음에 대한 상기를 위한 메멘토 모리로서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었으므로 육체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신체부위의 보존은 죽음의 기억이 아니라, 죽음에의 의식을 억압하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 말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황 교수가 천착하는 죽음의 무도인데, 주지하듯이 이는 흑사병의 무차별적 학살, 그리고 호이징하(Huizinga)가 지적하듯이 중세 말에 대두된 재물의 축적 및 삶의 자만(the pride of life), 그리고 사체취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sup>4)</sup> 홀바인 2세의 목관화(1538)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저자는 죽음의 무도의 탄생과정에 관련하여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인 중세 운명관, 메멘토 모리, 흑사병, 세속에, 데카당스 취미를 열거하며 유용한 해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콤포의 『영국식 죽음의 무도』(1815)는 계몽시대의 ‘점잖은’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청빈과 근면, 절제와 중용, 초탈과 수용의 삶을 청교도적으로 살아 온 인물은 죽음을 이미 준비된 의식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절제와 극기의 삶을 다하고 내세 및 섭리를 수용하는 편안한 죽음이다. 더불어, 황 교수의 설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홀바인의 목관화에 새겨진 아이러니컬 인물과 콤포의 인물들이 시사하는 초기소설 내러티브의 차이이다. 콤포의 ‘죽음의 무도’에 초대되어 끌려가는 초기 부르

3) Peter Brown (1981),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11, 75-77.

4) Johan Huizinga (1954),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Garden City, NY: Doubleday Anchor.

주아 직업군(397쪽)은 흠바인의 알레고리적 인물군(390쪽), 즉 ‘죽음의 무도’의 중세 아이콘적 인물 유형과 다르게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존 번연이 지은 『천로역정』의 17세기 후반 프로테스탄트 알레고리 내러티브가 그러하듯, 현세의 일상생활을 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상을 반영하는 모방적 내러티브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코키스의 『퀘벡의 죽음의 무도』(1999)에는 방종과 무질서, 상품소비, 육체찬미주의, 식탐욕 등으로 인한 비만자, 자살자, 균중적 자아, 정신착란자, 일중독자 등 오늘날의 인간형이 총망라된다. 그리고 황 교수는 쾌락 중독 증세 등에서 오는 자아 실종, 바로 이것이 중세적 죽음의 사자(使者)를 대체한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황 교수는 이들의 삶에서 삶의 “원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포스트모던 죽음의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옳은 지적이기는 하지만, 코키스의 작품에 관한 저자의 해설에서 모던시대를 설명하는 ‘외설적,’ ‘추악한’ 죽음이라는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은 근대와 근대 후를 나누는 기준점을 모호하게 한다. 즉 그저 근대의 심화가 포스트모던인가라는 의문을 남기는 것이다. 오히려, 저자가 제공하는 사무엘 베케트에 관한 해석(252쪽 등)이 포스트모던적 죽음이나 ‘끝’의 정서를 더 잘 설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베케트에게는 삶 속에 죽음이 있고, 그리하여 삶은 죽음의 유희이고 살아감은 죽어감과 꼭 같은 것인데, 단지 그 끝이 언제 닥치느냐만이 문제인 것이다. 삶은 무의미한데, 그렇다고 기독교 사유처럼 내세로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황 교수는 베케트가 영혼과 내세에 관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유물론적 무신론자에 기운다고 파악한다. 서평자가 보기에는 베케트를 통하여 저자가 애초에 던진 질문, 즉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라는 것에, 삶은 이미 시작된 죽음이지만 쉽사리 끝나지 않는 연장된 끝일지 모른다는 물음이 첨가되는 듯하여, 죽음과 끝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죽음은 불확실의 영역이고 진보와 생산에 위배되는 수치의 영역이지만, 포스트모던 죽음과 전(前)근대 죽음이 공유하는 점이 있다면,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나 친밀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봄직하다. 오늘날의 죽음은 하이퍼리얼에서의 죽음의 팽배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현저하다. 장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기호로서의 죽음이 만연하여 우리는 이 ‘하이퍼리얼’을 ‘리얼’보다 더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sup>5)</sup>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자살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하며, 서사시나 로맨스의 마법적 죽음과 재생을 닮은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며,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는 마비현상 마저도 빚어지는 것이 아닐까? 요컨대, 죽음에 관한 놀이적 양상이 포스트모던 죽음의 한 부분으로 지적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 저서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에드슨(Edson)의 「위트」(W;t, 1995)에는 영혼이 아니라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가 불멸한다는 패러독스가 등장한다. 바로 추악한 죽음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 즉 영혼과 육체의 생존을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추구하였던 주인공 인문주의자 비비안과 그녀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 제이슨이 각각 영혼불멸론과 영혼필멸론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는 이를 에픽테토스와 루크레티우스의 두 모델의 대립이 재등장한다고 해석한다(469-81쪽). 이로써 이 책의 끝은 처음과 만난다. 그런데, 독자가 어느 편을 취하더라도 양편은 모두 이교도 이론이며 내세의 모습이나 상벌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론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죽음의 태도는 후자인 유물론, 영혼필멸, 원자론을 암묵 간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염려한 햄릿과 달리, 오늘날의 인간들은 현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곧잘 자살을 택한다. 교회에서도, 죽음 후의 영혼의 거취나 그 징벌에 관한—아마도 순결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5) Jean Baudrillard (1993), *Symbolic Exchange and Death*, trans. Iain Hamilton Grant, London: Sage.

— 설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면 신도들이 모두 다른 교회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코키스의 「퀘벡의 죽음의 무도」, 에드슨의 「위트」 등, 포스트모던 죽음으로 끝나는 『서양문화에 나타난 죽음』은 암울하다. 아리에가 말하듯, 오늘날 죽음을 사유하는 것 자체가 유쾌할 리가 없다. 저자의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시각에 돌파구나 카타르시스가 없다면, 잉마르 베르히만이 연출한 영화 「제 칠의 봉인」(The Seventh Seal)의 일견을 권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온 기사가 겪는 흑사병, 죽음의 무도, 죽음과의 체스 게임, 그리고 죽음에 관한 실존적 물음이 한꺼번에 주어진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요셉과 마리아를 연상케 하는 요프와 미아의 단순성의 신앙이 있다. 한 모금의 청량음료 같이 구원을 암시하는 요소가 있다.

황헌성 교수의 『서양문화에 나타난 죽음』은 한두 가지 ‘옥의 티’는 존재할지 모르나, 많이 칭찬해 주어도 좋을 저작이다. 인쇄상의 오류가 없는 저술이며(본 서평자는 두어 개밖에 찾지 못했다), 원문번역은 정확하고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가능한 몇 가지 해석을 분류하여 소개하고, 그 각각의 소개에 또 분류를 도입하는 논지전개 스타일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해설의 분류와 판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정돈되어 혼란을 야기치 않는다. 그리고 이 저서는 논문쓰기 이상의 글 솜씨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의 문체는 분명하면서도 유려하여, 단조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저자 본인의 시도 한 편 소개되고(34-35쪽), 동양 철학의 조예도 간간이 비친다. 그리고 혼한 기독교 영혼관이나 내세신앙을 너머, 오늘날의 독자가 쉽게 접하지 못할 독특한 죽음현상과 이론들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왜 죽음의 역사를 이 시점에 말하려 하는지, 저술의 의의를 따져 볼 수 있다. 죽음의 무도 ‘삼부작’과 더불어, 이 저서의 백미는 그레코 로망 모델의 소개 및 적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측

면에서 본 저서가 오늘날의 죽음의식을 사유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치스런 죽음’이라든가, 원자론에 입각한 죽음 및 영혼의 해석, 포스트모던적 끝의 해설 등이 특히 그러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영미희곡 전공자인 황훈성 교수가 지은 본 저서를 ‘근대전공 문학자가 본 죽음의 역사’라 부른다면 좀 지나친 판단일까? 이 판단은 중세르네상스 문학 전공자인 본 서평자의 편견이 들어간 해석일 것이다. 더불어, 본 서평이 전(前)근대의 죽음 현상에 관해 불필요하게 수다스러웠다면, 서평자의 전공영역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주제가 되어 온 죽음의 역사를 다루는 어떤 저서들에서 그 범위나 강조점이 서로 다를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응당 그래야 할 것이다.

